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1> 마음과 경계를 다 잊어야

사람들은 좋고 아름다운 바깥 경계에 마음을 빼앗긴다. 예쁘게 화장하고 옷맵시를 멋있게 챙겨 외모를 가꾸며 남의 눈에 띄는 명품을 지니려는 요즈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그렇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면의 뜻을 가꾸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마음의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경계라도 그 인연이 흠어지면 바깥 경계는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어서 집착할 게 없다.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허망한 바깥 경계를 버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수행자라고 부른다. <선가귀감> 71장에서 말한다.

凡夫取境 道人取心 心境兩忘 乃是眞法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취하려고 하나, 마음과 경계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참된 법이다.

범부(凡夫)는 보통 사람들을 말한다. 수행의 위치에서 말하면 아직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진리에 대한 사제(四諦)의 이치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들은 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아야 하므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온갖 나쁜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 중생들은 육도(六道)에서 받는 과보에 따라 온갖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생(興生)이라 말하기도 한다. 아직 도(道)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다. 대승에서 분류할 때는 초지(初地) 이전을 범부라고 한다.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回向) 삼연(三賢)을 내범(內凡)이라

하고 십신(十信)을 외범(外凡)이라 하는데, 외범 이하를 범부라고 한다. 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과 같은 네 범의 성현인 사성(四聖)은 육도윤회를 벗어나 있지만, 범부들은 육도에서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쳐서 여섯 종류의 범부인 육범(六凡)이라 말하기도 한다. 자욱 중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포함한다. 이 범부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만을 따른다.

'이승(二乘)'에서 '승(乘)'은 태워서 운반한다는 뜻이다.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을 두 중

범부들은 바깥 경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집착 마음도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니 허망할 뿐

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승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이승은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부처님이 한평생 가르치신 교법(敎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대승과 소승으로 나눈 것으로서, 성문 연각을 위하여 방편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소승이라 하고, 보살을 위하여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을 대승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위에서 말한 소승을 분류하여 성문승과 연각승으로 나눈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고집멸도 사제의 이치에 힘입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혼자 심이인연의 가르침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연각승이라고 한다. 소승에 속

하는 이 이승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지만 도를 닦는 과정에서 마음에 나타나 좋은 경계에 집착하여 마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取境者 如鹿之趁空花也 取心者 如猿之捉水月也 境心雖殊 取病則一也 此合論凡夫二乘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취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가 물인 줄 알고 쫓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을 취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바깥 경계와 인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이것에 집착하면 병통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범부와 이승의 병통을 함께 말해 놓았다.

바깥의 경계가 객관이라면 인의 마음은 주관이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바깥 경계는 온갖 인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니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범부들은 바깥 경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그 경계에 집착한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먼 산의 아지랑이가 햇볕에 반사되어

흐르는 물처럼 보이자 목마른 사슴이 물로 알고 쫓아가듯이, 범부가 눈앞에 보이는 육진(六塵)의 경계를 쫓아가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하였다. 범부는 보이는 빛깔, 들리는 소리, 냄새와 맛 느낌 등의 경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하여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때문이어서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내 안의 마음도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실체를 찾아보면 허공의 꽃과 같으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승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가 본디 허망한 것인 줄 알지만 마음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 <현유경(賢愚經)>에

서 이르기를 "달 밝은 밤에 원숭이들이 우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숭이 줄을 만들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달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허망을 쳤다"라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저물 속의 달과 같이 허망한 것이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여 온갖 욕심을 불러일으키니, 슬기로운 사람이려면 어찌 그런 허깨비 놀음에 속고 살겠는가? 서산 스님은 계승으로 말한다.

天地尚空秦日月 山河不見漢君臣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드넓은 산하에서도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찾을 수 없네.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진나라 시대에는 해와 달도 진나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진나라가 망하고 진나라의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보는 관점인 주관에 따라 보이는 객관도 사라진다는 뜻이다, 범부가 사라지면 범부의 경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드넓은 산하에서도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찾을 수 없네"라고 한 것은, 한나라 시대에는 드넓은 산하에서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주된 노릇을 하였는데, 한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나니 그 나라에서 주된 노릇을 하던 임금과 신하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드넓은 산하로 비유한 마음이라는 것에도 주된 노릇을 하는 일정한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마음 그 자체가 사라지면, 이 마음에서 주된 노릇을 하던 중생의 시비 분별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범부는 보이는 경계에 집착하고 이승은 마음에 집착하는데, 집착이 남아 있는 한 중생의 시비 분별은 끝없이 이어진다. 범부와 보이는 경계가 사라지고 이승과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텅 빈 총만(空)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며 부처님의 세상인 것이다.

■ 원승 스님(송광사 인월암)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3>

대화법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 해결법이나 조언, 충고,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대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경청'을 우선으로 여긴다. 이와 함께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나 몸짓, 적절한 언어적 반응 등을 통해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상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적 반응법을 불교와 비교해본다. 첫 번째는 반영이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

질문에 응답하면 네 가지 형식의 답인 사기답(四記答)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하기(一向記答). 질문이 상담자의 생각과 합치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적절할 경우에 그대로 긍정하거나, 절대 불변의 진리에 관한 질문일 경우 단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별기(分別記答). 질문자의 물음에 대하여 그것을 분해하고 시비를 분별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진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분별하여 그에 알맞게 응답하거나, 조건에 따라 알맞게 구분하여 대답한다. 세 번째는 반문기(反問記答). 물은 이

현대 상담은 내담자 자체와 심리에 불교는 대화와 궁극적 진리에 초점

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료화다. 내담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 주거나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직면이다.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상담자가 그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해석이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행동과 내면세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이다. 즉, 반영→명료화→직면→해석의 순으로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접근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부처님의 대화법은 부처님이 여러 가지

가 말한 것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는 대답 방법이다. 부처님은 질문자가 토론을 즐기려 할 때나 설법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썼다. 네 번째는 무기(無記) 즉 침묵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나 대답할 일이 아닌 물음에 대해 대답하지 않을 것을 말한다. 질문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아무런 슬픔도 없는 경우 대답하지 않고 침묵해 버리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체에, 불교에서는 질문자가 궁극해 하는 바에 대화의 주안점을 두는 차이가 있다. 현대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에, 불교는 궁극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사리(舍利)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최근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특별전시회 불자들을 만났다. 사리장엄구는 금동제사리의함, 금동방향사리의함 등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봉납하는 용기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리장엄구는 사리구에 속한다. 사리와 함께 탑

속에 봉안되는 공양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사리구에는 사리장엄구 외에도 공양소탑, 탑지(塔誌), 기타 공양물 등이 포함돼있다.

사리장엄구는 금은 동철 수정 등 당시 귀하고 값진 재질로 만들어졌다. 사리장엄구에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비롯해 신중, 사자, 공양하는 스님, 보살들과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져있다. 이러한 장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숭모의 정과 존경심의 발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설이다.

우리나라 사리 전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 진흥왕 10년(549년)에 중국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어 불사리를 가져왔으므로 왕이 백관과 함께 흥륜사에서 맞이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그 뒤 안흥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고 호승 비파라 등과 함께 귀국할 때 <능가경> <승만경>과 불사리를 가지고 귀국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사리의 전래를 계기로 신라에서 사리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불사리를 봉납하는 사리장엄구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열반 후 화장하면 나오는 사리는 범어 Sāriṃa를 음역한 말로 부처님 신골(身骨)을 지칭하는 말이다.

김지연 기자

의륜당 의완 큰스님 법문집 출판기념 대법회

초청의 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창종주이시며,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회장인 의륜당 의완 큰스님께서 회갑을 맞이하여 36년간의 포교활동을 기념하는 법문집 우리절 식구 이야기를 발간하여 그 축하의 법연을 마련 하였습니다.

공사 다량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법연의 자리를 빛내주시고 고맙겠습니다.

법 회 안 내

-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 ◆ 장 소 : 강릉시 경포대 현대호텔 대연회장 ☎ 033)351-2233
- ◆ 주 최 : 전국 의륜 문도회 ◆ 주 관 :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 ◆ 후 원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종교예술방송, 연합불교방송
- ◆ 사무소전화 : 서울 동월 ☎ 02)439-4570 / 대구 수암 ☎ 053)985-5768

초청인 문도회

- ◆ 교문 : 혜성(장로), 현공(총회의장), 해원, 해주(모교부장), 월주(강원원장), 법정(총회의원), 해광, 해천
- ◆ 문 장 : 해원(총회부의장), ◆ 회 장 : 해법(총무부원장) ◆ 부회장 : 해석, 효상(총회의원)
- ◆ 감 사 : 서련(서울원장), 무애 ◆ 총 무 : 동월(총회사무국장)
- ◆ 문도대표 : 법성(대구원장), 지운(울산원장), 해승, 해각, 무해, 석암(사회국장), 산수(한국종교예술방송대표), 해동, 무일, 무공, 홍은, 자월, 명룡, 동훈, 지명,
- ◆ 손주상자 대표 : 불현(총무국장), 천광, 범수, 승연, 진상, 정식, 수덕, 수경 등 외 200여명 문도회 일동
- ◆ 추진위원장 : 수암(종단 총연합회 회장 사서실장) 합장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탑사 (033-671-7751)

2007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	8명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학 - 역경학 - 실천불교학	6명

2. 지원자격

-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조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전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 1) 원서 교부 : 2007. 6. 4(월) ~ 6.1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2) 원서 접수 : 2007. 6. 11(월) ~ 6.1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3) 전 형 일 : 2007. 6. 21(목) 13: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 4) 합격자 발표 : 2007. 6. 25(월)
- 5) 등록 기간 : 2007. 6. 27(수) ~ 7. 4(수)

4. 전형방법

- ※ 서류전형 및 면접
- 1) 장소 : 면접 교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 2) 시간 : 2007. 6. 21(목) 13:00 (박사과정) 14: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3)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 1부.
- 5) 수계확인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 (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갈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cm)

※대학/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7. 8.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박사과정 50,000원/석사과정 40,000원

7. 사정원칙

-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허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 장기 사정원칙에 기해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 FAX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 수지자)는 장학금 혜택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